https://doi.org/10.5392/JKCA.2020.20.12.659

#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홍성 의견(義犬) 설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panion Animals on Humans : Based on the Tale of a Righteous Dog in Hongseong

**김석은**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Seok-Eun Kim(sekim21@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홍성의견 설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논문과 홍성의견 설화를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 가운데 문화기술지 분석과 초점면접집단을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경제적, 문화 환경적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적 영향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사회정서면에서 더 건강하다는 반려동물효과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노년층, 사회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펫코노미 시장이 대변하듯 급격한 반려동물산업의 확장과 연관을 지어 SWOT 분석을 시도하였고, 문화 환경적 영향으로는 다양하게 등장하는 문화 캠페인이나 설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문화 기술분석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과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공생관계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를 촉발한 점, 나아가 개인주의가 극대화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삶에 반려동물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깊이를 더한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반려동물 | 인간 | 의견(義犬) | 고령사회 | 문화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ompanion animals on humans based on folk tales of righteous dogs in Hongseong. By targeting the theses and Hongseong righteous dog tales for this purpose, analyses of Ethnography and FGI(Focus Group Interview) were use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ccording to research analysis, the impact of companion animals on humans was analyzed as emotional, economic, and cultural and environmental effects. In the case of emotional impact, the effect of companion animals on social sentiment is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various classes, ranging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to the elderly and the socially vulnerable. On the economic aspect, SWOT analysis was attempted in connection with the rapid expansion of the companion animals industry, as represented by the Petconomy market, and analysis was attempted by focusing on cultural campaigns and tales that appeared in various cultur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uggest that this study is one that adds depth to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culture and technology of companion animals, that it triggers the contribu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s and humans through the specific region, and that pets will have an emotional positive impact on human lif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individualism will be maximized.

■ keyword : | Companion Animal | Human | Righteous Dog | Aged Society | Culture |

접수일자 : 2020년 10월 26일
수정일자 : 2020년 11월 18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1월 18일
교신저자 : 김석은, e-mail : sekim21@naver.com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 역사상 중요한 발달 가운데 하나가 '야생동물의 가축화'이다. 인간이 12,000여 년 전 늑대를 가축으로 키우다가 현재 개가 인간과 함께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반려동물의 역사는 17세기 말로 추정된다. 이 시기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으며, 18세기 말부터 중산층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19세기에 이르러 반려동물은 단지 인간과 함께 거주하며 일을 돕는 차원을 넘어 인간을 위한 교제와 놀이 상대로 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현대로 이어지며 반려동물은 장식용에서부터 지위의 상징, 그리고 친구의 역할까지 다양한 기능을 지니게 된 것이다[1].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자신의 소유물로 데리고 논다.'라는 의미의 '애완동물'에서 진화되면서 1983년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급격한 경제성장을 가져온 나라로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생존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욕구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의 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화적인 연속적 변화에 따라 인간인 가족보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펫팸족처럼 반려동물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펫팸족은 반려동물(pet)을 가족(family)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음은, 인간 욕구의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2000년 진입, 2017년 14.2%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예정이다[2]. 이는 그동안 가장 빨랐던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12년보다도 빠른 고령화이다. 선진국에서는 공통으로 늦게 결혼하고, 낮은 출산율과 고령사회라는 인구 통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3]. 또한, 2019년 UN 인구기금이 발표한 2020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개국 중 198위로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꼴찌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 시대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되고, 2만$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며, 3만$에는 동물의 인격화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 3만$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반려동물의 인격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특징을 가진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행, 반려를 뛰어넘어 가족이며 보호의 대상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은 독신 가구와 무자녀 가정 그리고 단독가구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반려동물산업은 경제 불황과는 크게 상관없는 산업이라는 평가도 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 양육하고 있기에 경기 불황과는 관계없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은 사후관리비용이 적은 공산품과는 달리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로서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반려동물 양육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반려동물 산업 또한 증가할 것이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6.4%로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나 호주 등의 선진국이 전체 인구의 약 60~70%에 이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수조(兆) 원의 산업군을 형성하게 되었고 향후 10대 산업으로까지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가운데 개는 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육식동물에서 인간과 똑같은 잡식성으로 바뀐 경우이다. 개를 대변하는 단어가 있다면 충직일 것이다. 실제 개의 코가 차가워진 이유가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물이 샐 때 그 틈을 개가 코로 막은 이후로 차가워졌다는 전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

려져 있다. 또한, 개는 사흘만 기르면 삼 년간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등 개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이야기 대부분이 개의 충직함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개는 충직하고 의리 있는 동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개와 관련된 충견 설화가 많다. 나아가 이러한 개의 의미 있는 설화들은 개가 충직한 동물인 그것을 넘어 인간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문화나 환경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상과 같이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인간들에게 충직한 개의 본성 등으로 국내 반려 동물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려 동물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문화의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한 여가활동도 많이 보게 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속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다[4].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의 펫티켓이나 비반려인의 배려가 부족하다. 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의 반려동물 생산과 같은 사회적인 폐해도 양산하고 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은 상호 입장에서 지켜야 할 펫티켓이 필요하다. 반려인은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이라는 고정된 의미를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데[5] 반하여 강아지를 양육하지 않는 비반려인은 그저 애완동물로 대한다.

이제 반려동물도 동물보호법으로 기본권을 부여받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반려동물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반려 동물 문화 또한 반려동물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 수준이 높다.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국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문제를 위한 적절한 법적 제도와 실천적인 동물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6].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을 통해 분석한다.

둘째, 반려동물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한 지역사회의 관광·경제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홍성의견 설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금이나마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대상을, 2장에서는 문화기술지 연구에 대해서, 3장에서는 홍성의견 설화와 관련해서, 4장에서는 연구 분석으로서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양한 분석으로 구분하고, 5장은 결론, 그리고 본 연구에 참고한 참고문헌으로 맺는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설화와 학제적 문헌, 즉 논문을 중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화의 경우 홍성의견 설화를, 논문의 경우 검색사이트 RISS를 통해 KCI 등재지 가운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논문 가운데 '반려동물'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선정하였다. '반려동물'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국내학술지만 481건, '애완동물'을 검색어로 입력하였을 때 국내 학술지만 350건이 검색되었기에 검색어로 '반려동물'을 선정하였고, 최근 10여년간의 논문으로 한정지었다. 검색된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논문이 법학과 디자인 분야의 논문인 것을 감안하여 두 분야의 논문을 제외한 15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논문**

| 논문 발행년도 | 논문 제목 | 연구자 | 발행처 | 비고 |
|---|---|---|---|---|
| 2017 |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 이용숙 | 한국문화인류학회 | 한국문화인류학 50(2):337-403 |
| 2018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추정 및 전망 | 조재성 외 | 한국축산경영학회 | 농업경영·정책연구 45(3):611-629 |
| 2020 | 반려동물 문화개선을 위한 문화 콘텐츠와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융합 연구 및 구현 | 이서영 이규정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3):207-219 |
| 2018 | 반려동물 상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 김유리외 |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19 |
| 2019 |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성은 | 한국융합과학회 | 한국융합과학회지 8(3):167-180 |
| 2020 | 반려 동물산업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동물 학대 경험 및 생명존중의식 간의 관계 | 박효진 정구철 | 한국웰니스학회 | 한국웰니스학회지 15(2):367-379 |
| 2011 |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 문영희 | 한국지역사 | 한국지역사회복지 |

| | | | | |
|---|---|---|---|---|
| |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 김효정 | 회복지학회 | 학 37:455-477 |
| 2019 | 반려동물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외연구를 중심으로 | 허영태 박춘성 |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 23(3):133-151 |
| 2018 | 반려동물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효과 | 김세영 박형인 |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1001-1018 |
| 2017 | 반려동물 효과: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의 메타분석 연구 | 김세영 박형인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 28(1):101-115 |
| 2018 | 사회적 배제, 반려동물 키우기,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탐색적 연구 | 이국희 | 감성과학 | 22(1):3-14 |
| 2020 | 성인의 반려동물 안락사 경험과 복합 비애: 위험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정민지 안현의 | 상담학연구 | 21(2):269-289 |
| 2017 | 성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및 애착과 삶의 질과의 관계 | 한아람 | 인문사회 | 8(6):1094-1107 |
| 2016 | 영화 〈마음이〉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 관계의 탈구조주의적인 고찰 | 강정구 | 한민족문화연구 | 54:327-356 |
| 2019 | 인간과 동물의 반려 관계에 대한 윤리적 소론- 안내견 사례를 중심으로 | 소병철 | 용봉인문논총 | 163-192 |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와 초점면접집단을 통해 분석되었다. 문화기술지 분석은 새로운 언어, 음식, 풍습, 풍경, 생활상 등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인 호기심을 탐구와 이해로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으로 개인 차원의 문화적인 요소보다는 근본적으로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된 문화가 갖는 의미에 관해 관심을 두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영학박사 1인, 철학박사 1인, 교육학 박사 1인으로 구성된 초점면접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는 문화기술지분석의 특수성인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요구되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였으며 또한 질적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력의 박사로 구성하여 질적 분석에 대한 전문적 분석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는 이들 초점면접집단과 논문의 진행 과정에서 1회, 논문 완성 후 2회, 모두 3회에 걸쳐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이 과정은 전자우편을 통해 반영되었다.

## II. 문화 기술지 연구

### 1. 문화 기술지의 정의

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질적 연구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 혹은 문화집단(ethnos)을 의미하는 말과 기술하였다(graphy)는 뜻을 지닌다. 이는 새로운 언어, 음식, 풍습, 풍경, 생활상 등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인 호기심을 이국적인 또는 낯선 문화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등장시켜왔다. 문화 기술지는 외부자적 관점에서 타인들에게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던 전통적인 문화 기술지와 연구자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내부자적 관점의 자기문화 기술지로 나뉜다.

외부자적인 관점의 문화기술지인 전통적인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연구 대상과의 거리를 두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였는가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연구자 또는 연구자가 속한 국가와 민족이 접해보지 못했던 다른 민족이나 종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어 근대에 들어와서 마니아, 빈곤, 세계화, 교육, 다문화, 사회적 계층, 집단 간 갈등과 같이 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집단의 독특한 문화와 사회적인 문제 영역으로 그 관심이 이동하였으며 이를 내부자적인 관점의 자기문화 기술지라고 한다.

문화기술지는 결과 보고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자유롭다. 심지어 시, 소설, 에세이, 일기, 사진 에세이와 같은 형태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방식은 학문적 기여, 미적인 기여, 성찰성, 영향성, 실체성의 표현 등의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7].

### 2. 문화 기술지의 특징

문화 기술지는 특정한 형식을 띄지는 않지만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문화 기술지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과제는 특정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 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둘째, 문화 기술지 분석은 연구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며, 내부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문화 기술지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과 혼용될 수 있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연구 방법이다. 가령, 수행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례연구, 근거

이론 등에서 사용되는 연구 설계 요소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문화 기술지의 자료수집에 있어서 핵심적인 활동은 현장연구에 있고, 주요한 자료수집의 방법은 참여관찰이다[7].

### 3. 문화 기술지의 분석방법

문화 기술지의 자료 분석은 문화 기술지만이 갖는 특정한 자료 분석 방법이 아니라 산재해 있는 자료 가운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찾아내고 분석할 것인가이다. 문화 기술지가 갖는 연구주제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맥락적 축소나 상징에 대한 분석, 문화적 패턴, 전략적인 지식 등이 자료 분석의 대상이 된다. 첫 번째는 맥락적 축소이다. 이는 인간 행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게 되면 그런 행위에 미치는 거시적 사회요소들을 분석해내는 과정이다. 두 번째로 상징에 대한 분석이다. 상징은 언어, 의복, 음악, 과학기술, 예술작품 등 어떤 문화 체제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인공물을 의미한다. 상징 안에 내포된 의미까지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세 번째는 문화적 패턴이다. 패턴은 두 개 이상의 어떤 관계성을 가졌을 때로, 하나의 상징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분석할 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지식 분석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기술지를 분석할 때 유의할 점은 문화기술지가 근본적으로 어느 집단의 생성된 공유 문화가 갖는 의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다. 개인차원보다는 집단, 조직, 사회적 차원의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한다. 연구 결과에 대하여는 의도하지 않은 편견과 자의성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7]. 신미란·고애란(2006)은 한국 코스프레 집단을 일본과 비교하여 문화기술지 연구를 시도하였으며[8], 최종렬(2013)은 안산 다문화 거리를 관광객의 시선으로 자아문화기술지 분석을 시도하였다[9].

## Ⅲ. 홍성 의견 설화

국내 대부분 설화의 내용은 주인과의 충성과 의리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그 가운데 부산 반송의 개좌산과 천안 개목고개(개목이) 설화[10], 그리고 홍성의견 설화는 그 내용이 감동적으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홍성 의견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옛날 홍주성(지금의 홍성) 역치고개 아래 동네(현재 고암리)에 사는 한 농부가 장에 가는데 집에서 먹이는 개가 따라왔다. 농부는 장에서 일을 마친 뒤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여 집으로 향하였다. 역재(역치고개) 마루턱에 온 농부는 잠시 쉬려고 길가 잔디밭에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개는 잠자는 주인의 옆에 앉아 지키고 있었다.
> 얼마 후 개가 서쪽을 보니 산불이 나서 이쪽으로 타들어오고 있었다. 개는 주인을 깨우려고 힘껏 짖어도 보고 옷을 물고 잡아당겨도 보았지만 술에 취한 농부는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다.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 주인의 둘레를 맴돌며 울부짖던 개는 부리나케 고개 아래에 있는 연못으로 달려갔다. 개는 연못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적신 뒤에 다시 주인이 잠든 곳으로 달려와 몸을 굴려 잔디에 물을 묻혀 불이 타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개가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니 타들어오던 불길은 농부가 누워 있는 곳을 비켜서 지나갔다.
> 이윽고 농부가 잠에서 깨어 보니 둘레가 모두 불에 탔는데 자기가 누운 곳만 타지 않았다. 이상하여 살펴보니 자기가 누웠던 곳의 잔디가 물에 젖어 있고 그 옆에는 개가 온몸이 물과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짐작한 농부는 개를 끌어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주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개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 농부는 자기를 살리고 죽은 개를 겉옷으로 잘 싸서 연못 안의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개가 죽은 날이 되면 먹을 것을 많이 싸 들고 개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연못을 '개방죽'이라고 하였는데 역이 생긴 뒤에는 '역재 방죽'이라고 하였다[11].

## Ⅳ. 연구 분석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정서적 영향, 경제적 영향, 문화 환경적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 1. 정서적 영향

### 1.1 반려동물 효과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들보다 노인들을 상대로 더 많이 연구되었다. 김세영[12]은 개는 노인들에게 마치 자녀처럼 애정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사회적 관계가 감소된 노년기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사회정서면에서 더 건강하다는 반려동물 효과, 특히 반려견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외로움을 낮게 지각했으며, 반려견에 대한 애착은 친밀한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한 정서적인 지지만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힐링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논문분석 결과, 반려동물의 효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감이 높으면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정서적인 지지는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14][15]. 반려동물 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양육하는 성별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정서적 지지가 더 높게 지각[16] 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행동에 있어 시간과 경제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여가활동으로 느낀 반면, 남성들은 같은 행동을 여가와 사회적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끼는[12]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만족 수준은 주관적 안녕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15]. 반려동물에 대한 만족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개념인 애착과 달리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반려인의 경우, 반려동물에게서 자율성, 유능함, 친밀감 동기를 만족시키는 소유자들이 더 건강한 것으로 연구되었다[17]. 반려동물은 소유자에게 가까운 어떤 대상을 자발적으로 아끼고 보살필 기회를 제공하여 만족감을 주며, 이 만족감은 소유자를 행복[13]하게 하며 이것이 건강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국희[18]는 반려동물이 미치는 정서적 측면을 사회적 배제와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사회적 배제란 'OECD가 측정하고 있는 존중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지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감이 상당히 저하됨을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인간은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낄수록 반려동물과 함께 정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1.2 대상에 따른 정서적 영향

반려동물의 정서적 역할은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부가 정서적 건강, 사회성, 그리고 인지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리, 책임의 부여가 아동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독립성과 같은 자율적 특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행동개발을 장려한 것이다. 또한, 인지발달이 급속히 발달하는 민감한 아동시기에 반려동물과의 관계 형성은 사회적 인지발달 능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적인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7]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활동과 관계가 축소되는 노인들의 경우, 특히 반려동물이 중요한 정서적,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되었다[19]. 복지국가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마련한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되었고, 예측하기는 앞으로 5년 후인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문영희·김효정[19]은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 후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건강과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지 등인데, 노인들은 노령화되면서 쇠약해진 건강으로 인한 육체적 기능저하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역할 상실이나 사회적 지지의 단절 및 축소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기능도 저하되어 어려움을 겪는다. 반려동물은 노인들의 자존감 제고와 우울 감소뿐 아니라 상호 소통까지도 가능하며 사회·정서적 지지에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노인과 정서적 측면에서 유사한 건강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돌봄 행위가 정서적 안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5]. 이는 반려동물이 건강증진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의 정서적 역할은 두드러졌다. 대인관계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가정·학교폭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반려견을 양육하게 했을 때,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과 같이 자란 아이들의 사회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훨씬 높다[17]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동물과의 대화나 만지고 쓰다듬는 등의 접촉행위, 나아가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증가하고 책임지려는 행위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 1.3 기타

정민지·안현의[20]는 상담과 반려동물을 연관 지어 연구하였다. 이들은 반려동물 상실에는 상담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반려동물 상실경험을 인간과의 사별과 마찬가지로 존중하고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상실은 가족의 상실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환각, 일시적인 일상 복귀의 어려움, 우울감과 슬픔, 정신적인 공허감과 허탈감을 갖는다[21].

이 외에도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져 동물학대 경험과 생명존중의식의 저하까지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22]. 그러나 반려동물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소통의 통로가 되므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반려동물은 주변의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구하여 해결하는 지지추구적 정서조절과 마찬가지의 심리적 건강을 준다[15]고 해석할 수 있다.

홍성 의견 설화에서도 개가 주인에게 미친 정서적인 영향이 잘 드러난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신을 살리고 죽은 개를 겉옷으로 잘 싸서 연못가의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묻어 주었다. 과거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 새 옷을 한 벌 선물했다거나 우리가 죽으면 수의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등 옷은 상대에 대한 예의를 의미한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싸주었다는 행위만으로도 주인이 자신의 개에게 어느 정도의 깊은 감정을 지녔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감정은 정서와 연관되어 있기에 개와 함께 하는 그 시간 동안 주인과 개가 나눈 정서적 교감은 그 누구라도 쉽게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옷을 그 자리에서 벗어서 싸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과 동격화할 정도의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못가의 섬에 묻어주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주인과 개의 정서적 교감을 또 한 번 자신의 분신과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못, 즉, 못은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서유구의 기록에 따르면, '고기를 기르면서 감상할 수 있고, 논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였으니 물의 실용성과 감상뿐만 아니라 심신 수양을 추구하는 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연못의 의미로 볼 때 주인이 개를 그냥 땅에 묻지 않고 굳이 연못가의 섬에 묻었다는 것은 자신이 개를 생각하는 마음이 땅과 같이 평범함을 넘어 지속적인 경건함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섬이라는 장소 역시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의미하는 자들이 주로 거주하거나 드나드는 곳이다.

옷, 못, 섬. 이 세 가지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인이 개를 생각하는 마음의 정도는 평범하지 않고 극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나눈 상대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자기를 살리고 죽은 개를 겉옷으로 잘 싸서 연못 안의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개가 죽은 날이 되면 먹을 것을 많이 싸 들고 개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다' 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은 개를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겼음이 드러난다. 부모와 형제의 제사를 지내듯, 어쩌면 주인에게 개는 형제이자 자식과 같은 동반자였을지 모른다. 기일을 기리며 개가 좋아했던 먹거리를 챙겨 추모하는 행위에서도 정서적으로 나눈 교감의 정도는 실로 놀라울 정도다. 단지 측은하고 미안한 마음을 넘어선 가족애와 사랑, 경외심까지 느껴지는 둘의 관계가 이 설화에서 나타난다.

## 2. 경제적 영향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펫코노미(Pet-

conomy: pet+economy)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산업인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의 번식을 통한 생산·분양·유통,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용품·수의·진료·약품·보험·미용·휴게 보관, 사후처리를 위한 장례 등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1~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약 9천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2020년 시장 규모를 연평균 성장률 26.3%를 적용하여 약 6조 원으로 전망하였으나[23], 세계의 경제 불황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6조 원의 시장 규모는 시기만 지연될 뿐 곧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재성 등[23]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Bass 확산모형(Bass Diffusion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1969년 발표된 수리적 모델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출시되어 보급률이 10% 정도가 되면 시장에 존재가 뚜렷하게 각인되고, 30%까지 올라가면 임계점이 형성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모형이다. 다시 말해, 이 확산모형은 시장 규모가 산업 초기에는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한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에는 더디게 성장하고, 결국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Bass 확산모형을 근거로 볼 때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신규 사육은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에는 최대 2만 마리 정도가 신규 사육함으로써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2018년 1조 5,441억 원에서 2027년에는 3조 4,949억 원까지 증가하고, 2031년에 이르러서야 포화점(4조 4천억 원)에 근접한 4조 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용숙[13]은 반려동물과 직결된 소비가 아닌 자동차 구매, 어디서 일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의 결정에도 반려동물을 염두에 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반려동물을 위한 애완동물 팸 가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를 양육할 때 골칫거리는 털 날림과 특유의 퀴퀴한 냄새인데 이를 해결해 주는 공기청정기를 비롯하여 반려동물 드라이어, 자동 화장실, 반려동물 촬영에 최적화된 카메라 등 다양하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반려동물의 번식을 통한 생산·분양·유통과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용품·약품·보험·미용·호텔, 반려동물의 사후처리를 위한 장례 일을 담당하는 장묘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연계되었다.

이와 같은 근거로 홍성의견 설화가 전해지는 홍성군의 반려동물문화산업 SWOT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홍성의견의 반려동물문화산업 SWOT 분석은 [표 2]와 같다.

**표 2. 홍성의견의 반려동물문화산업 SWOT 분석**

| Strength (S) | Weakness (W) |
|---|---|
| · 도심 속 공원(생태공원)에 위치<br>· 반려동물(犬)에 관한 관심 고조<br>· 교통 편리(홍성역, 홍성 버스 터미널) | · 빈약한 이야기<br>· 임실군 오수개 복원 |
| **Opportunity (O)** | **Threat (T)** |
| · 서해선 (복선) 전철 개통 예정<br>·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홍성)<br>· 의(義)의 고장, 홍성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

먼저, 강점(S)으로는 도심 속에 역재방죽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관심을 두고 홍보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 고조와 교통이 편리하여 홍성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가깝다는 것 또한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기회(O)로는 서해선(복선) 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에 편입될 정도로 한 시간 남짓이면 서울에서 홍성(전철)역에 도착할 수 있고,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가 인근에 있어 새로운 홍성의견문화제를 주관하기에 충분하다. 홍성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최영, 성삼문, 김좌진, 한용운, 김복한, 홍주 의병 등 관련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것 또한 기회이다. 이야기가 빈약하고, 전북 임실군 '오수개' 복원은 유사한 이야기와 후발주자로서 갖는 약점(W)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위협(T)요인으로 분석된다.

## 3. 문화 환경적 영향

문화란 한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을 말한다. 문화는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존재한

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오면서 후천적으로 학습한 생활양식을 문화로 정의한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약속의 체계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으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역사의 산물이 문화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적 영향은 다양하게 정리해볼 수 있다.

문화는 순간의 전이라기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변화하며 형성된다. 먼저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문화유적을 참고로 살펴본다. 고고학자 Simon은 1978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북부의 구석기시대 유적지에서 개가 인간에게 반려동물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었다. 이 고분에서 확인된 상황은 죽은 사람의 왼손을 개의 어깨부분에 다정하게 가져다 놓은 모습으로 연출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에도 개를 길들였다는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개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의 그림에서도 길든 반려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고대 왕국 시대의 벽화에는 개, 고양이, 기러기, 사자 등이 인간과 특별한 관계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20].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반려동물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반려동물의 죽음에 슬퍼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관계가 유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하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우선, 최근 들어 쉽게 가시화되는 반려인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설화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문화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인간에게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심리적 안정까지 더해 준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것은 사회적 접촉에도 도움이 된다. 가령, 반려동물을 마치 아기처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닌다거나 포대기에 싸서 안고 다니는 등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다양한 신제품들은 새로운 문화형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대표적인 신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2017)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해 약 1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으며, 기르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9.9%에 달했다. 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불법으로 땅에 묻거나,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 폐기물로 소각하는 기존의 방법 대신 반려동물의 죽음을 소중한 사람의 죽음처럼 여기고 애도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1].

둘째, 반려동물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문화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The Yellow Dog Project' 캠페인은 국내 반려동물 문화의 올바른 대중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The Yellow Dog Project란 "노란 리본을 단 강아지는 만지지 말아 주세요"라는 뜻이다. 반려견과 반려가족을 돕기 위해서 2012년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현재 50여 나라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반려동물 문화개선을 위한 문화 콘텐츠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간의 문화적 인식 고취를 기대[6] 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1인 가구나 독거 노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미약한 시설의 노인들에게는 반려동물 그 자체가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사회적·촉각적 접촉의 하나일 수 있다. 이를 위한 반려동물의 역할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반려동물은 노인에게서 흥미와 활동을 유발하며 나아가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위안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반려동물은 사람들과의 분위기를 가족적으로 만들고 유대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노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노후의 생활은 젊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 쉬우며, 홀로 되는 것과 사회와의 단절은 노인들이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 동일 환경이라는 가정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안정하다[18]는 결과처럼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노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과 양육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접촉을 증가시키며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기술 향상을 가져다주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 환기와 정당화 효과를 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반려견을 통한 노인성 질환(치매) 환자의 사회 적응 향상에 반려동물 활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24]. 이러한 배경에서 반려동물은 증가하는 1인 가구, 1인 노년층에게 새로운 문화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문화환경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특히, 홍성의견 설화의 중심인 역재방죽은 가시연꽃과 60여 종의 곤충, 86종의 식물 그리고 20여 종의 텃새와 철새가 서식하는 곳으로 이미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25] 홍성의견 설화가 이곳에 이야기를 더해 역재방죽을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자연관찰 및 학습을 위하여 조성된 역재방죽 생태공원은 홍성의견 설화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되어 학습장소를 넘어 문화를 공유하는 장소로 진화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효과를 정서적, 경제적, 문화 환경적 영향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흑백논리와 같은 생각이 들지만, 굳이 분류하여 배치했을 뿐이다. 오래전 선사시대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온 개는 사냥을 하거나, 양 떼를 모으고, 가축들을 지키며 인간과 더불어 정을 나누며 살아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돕는다. 그중에서도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둘도 없는 도우미가 된다. 안내견은 태어날 때부터 안내견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들은 자신들을 최대한 억제하며 생후 7주령부터 1년간 '퍼피 워킹'이라는 사회에서 공인된 안내견 양성기관에서 예비 안내견으로서 자원봉사자의 가정에 위탁하여 사회화 훈련을 받는다. 그다음에 안내견 학교에서 훈련 및 시험 과정을 거쳐 합격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공식적 안내견이 되어 도우미가 된다. 소병철[26]은 어떤 형태의 반려동물이건 그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돌보고 가능한 한 그 삶을 전보다 더 낫게 만들어 주고 애정과 신뢰로 기대를 표현한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의 삶은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V. 결론

반려동물 중에서도 개는 충실하고 의리 있는 동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개와 관련된 충견 설화가 많다. 나아가 이러한 개의 의미 있는 설화들은 개가 충실한 동물인 그것을 넘어 인간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문화나 환경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인간들에게 충직한 개의 본성 등으로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논문 15편과 홍성의견 설화를 연구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 문화 기술지와 초점면접집단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정서적, 경제적, 문화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으로는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사회성 향상 등의 반려동물 효과가 있다. 둘째, 경제적 영향으로는 반려동물인구 1,500만 명 시대에 약 6조의 반려동물 관련 시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동물보호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홍성의견 설화가 숨 쉬는 역재방죽 생태공원 문화체험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문화 환경적 영향으로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온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반려동물의 문화 기술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의 사례를 학계에 보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공생을 위해 홍성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분석,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셋째,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반려동물이 미칠 긍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지만 특히, 개인주의의 극대화가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인간의 정서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열린 세계미래학회 세미나에선 21세기 10대 변화 중 하나로, 2035년 인구증가는 멈출 것이고 대신 반려동물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고령화의 가속과 저출산, 비혼 등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를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시대 사람들이 강아지·고양이를 비롯해 미어캣·고슴도치, 심지어 다양한 파충류 등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만 봐도 앞으로의 시대를 예측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이런 맹목적인 애정에 대한 대가로 반려인은 반려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하며 그들과의 교감을 인간관계의 일부처럼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새로운 문화를 양성시킬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시대에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학문적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언급하자면 첫째, 국내 반려동물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충분한 선행연구를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기폭제 삼아 향후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연구의 분야확장과 그 폭과 깊이가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도한 문화 기술지 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를 중요시하는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를 시도하면서 연구자의 부족한 연구경력과 좁은 소견으로 해외 학술지를 참고하지 못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국내 특정 설화를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긴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해외학술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 기술지 분석이라는 질적 연구가 아직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기에 문화 기술지 분석을 참고할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향후 연구 방향은 좀 더 질적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영미, *아동의 반려동물 경험과 가족건강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 통계청, *통계자료*, 2020.

[3] 이강원, *애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4] 김정연, 강원국, 김유식, 김현우, 박서연, 백인혁, 정현진, 최대규, 김옥진, “국내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고찰 연구,”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제7권, 제1호, pp.31-37, 2017.

[5] 강정구, “영화 〈마음이〉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 관계의 탈구조주의적인 고찰-,” 한민족 문화연구, 제54권, pp.327-356, 2016.

[6] 이서영, 이규정,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문화 콘텐츠와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융합 연구 및 구현,”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제38권, 제3호, pp.207-219, 2020.

[7]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2.

[8] 신미란, 고애란, “한국 코스프레 집단의 문화기술지적 연구 Ⅱ -한국과 일본의 코스프레 문화에 대한 비교분석-,” 복식문화연구, 제14권, 제1호, pp.1-15, 2006.

[9] 최종렬, “관광객, 이방인, 문화기술지지자: 한 에스닉 관광 문화기술지에 대한 자아문화기술지,” 문화와 사회, 제14권, pp.51-96, 2013.

[10] 최래옥, “인간을 말하는 의견설화-그 분류와 해석,”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pp.131-141, 1983.

[11] 홍성문화원, *홍성의견설화*, 홍성군, 1997.

[12] 김세영, 박형인, “반려동물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23권, 제4호, pp.1001-1018, 2013.

[13] 이용숙,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한국문화인류학, 제50권, 제20호, pp.337-403, 2017.

[14] 한아람, “성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및 애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인문사회, 제8권, 제6호, pp.1094-1107, 2017.

[15] 김세영, 박형인, “반려동물효과 :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의 메타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pp.101-115, 2017.

[16] 이성은,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제3호, pp.67-180, 2019.
[17] 허영태, 박춘성, "반려동물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외연구를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 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133-151, 2019.
[18] 이국희, "사회적 배제, 반려동물 키우기,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탐색적 연구," 감성과학, 제22권, 제1호, pp.3-14, 2018.
[19] 문영희, 김효정,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7권, pp.455-477, 2011.
[20] 정민지, 안현의, "성인의 반려동물 안락사 경험과 복합 비애: 위험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 연구, 제21권, 제2호, pp.269-289, 2020.
[21] 김유리, 조아라, 신은재, 현소연, 유기덕, 전순초, 김미리혜, 최승원, 김정호, "반려동물 상실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2018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319, 2018.
[22] 박효진, 정구철,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동물학대 경험 및 생명존중의식 간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5권, 제2호, pp.367-379, 2020.
[23] 조재성, 서강철, 김현중, 김원태, 지인배,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추정 및 전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5권, 제3호, pp.611-629, 2018.
[24] 한상원,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5] 이행렬, 옥준현, "홍성역재방죽 생태공원,"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제10호, pp.1-22, 2000.
[26] 소병철, "인간과 동물의 반려 관계에 대한 윤리적 소론-안내견 사례를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제54권, pp.163-192, 2019.

## 저 자 소 개

**김 석 은(Seok-Eu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강사
- 2019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외래교수(강사)

〈관심분야〉 : 동물자원경영, 반려동물 문화